

목어

가능성의 나라

한국 종교계, 가톨릭 개신교 유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해 주었다. 바티칸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오고 신부님이, 목사님이 직접 산사를 찾아 법회에 참석하는 등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불교 역시 몇 년 전부터 종교 종파적 경직성을 털고 산사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해 주고 불교방송에서 캐럴을 들려주는 등 종교화합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2천년간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행했던 폭력'을 진지하게 참회한 내용은 모든 종교계가 주목할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진리를 위한 폭력, 그것은 아직도 정치적 또는 권위적 교리와 교세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종교백화점이라 불리는 나라, 한국에서도 일부 종교적 맹신자들이 하여 특히 불교가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화해와 화합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반갑다.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과 사상을 가진 동서양 종교는 화합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함께 공유할 공통의 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 영역의 확장 또한 가능하다. 그것은 '같은 것 찾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자비와 사랑,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등 실천행의 장이 다르지 않다. 북한동포를 걱정하며 함께 통일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 일에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끝없는 인간들의 욕망으로 황폐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며 인권문제도 그렇고 무너져가는 현대사회의 도덕성 회복에도 이는 종교나 길은 관심을 두고 있다. 유전공학 등 현대과학의 위험한 독주를 보는 시각 역시 종교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보면 한국 종교계가 공유할 영역,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어쩌면 이 같은 한국적 상황이 세계의 종교화합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오이, 나는 가지, 우리는 다정한 친구'란 선시(禪詩)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종교화합의 시대, 비교우위를 위한 불교계의 분발할 기대해 보고 싶다.

김정자(인문·복지논설위원)

조계종 총회 변화 움직임

종책 생산기구로 거듭나자

분과위별 종단현안 주제선정 세미나 열고 자료집 발간기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 중앙총회가 종책생산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 교육, 포교 등 중앙총회 7개 상임분과위원회는 분과위별로 종단 현안을 주제로 선정,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을 통해 종단현안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종책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공청회 임정은 상임위에 따라 다르나 7~8월 중 열리며, 9월 개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 결과 보고와 함께 필요할 경우 증빙 제·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 주제가 승가교육, 군 포교, 징계 관리방안 등 종단의 주요 현안이거나 이후 종단 운영의 방향을 가능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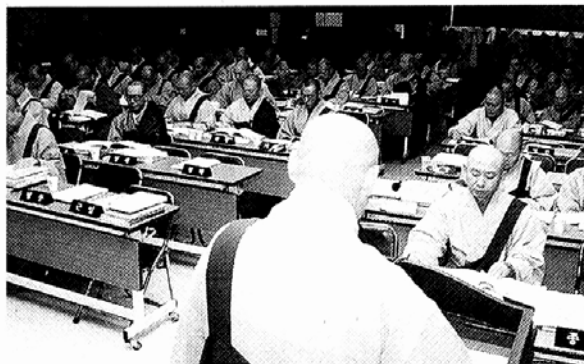
총회는 이같은 상임위 활동에 5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지난 해 종책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종단사태 등의 이유로 열지 못했다. 총무, 포교, 교육 분과위원회만 1, 2대 중앙총회 회의록 발간, 신도교육체계 세미나, 승가대 학인정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회의장 범등스님은 "상임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종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종도들의 바람이 있었다"며 "종책을 제시하는 종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총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를 거듭해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하는 등 파행을 자주 보여 종도들로부터 "종도들의 대의 기구 및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총회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였다. 올해 중앙총무기관 예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과해야 하나 시일을 늦추다 올 3월에야 확정하는 기현상을 보여줬다.

종책연구모임을 표방하고 있는 총회 내 그룹의 변화도 요망된다.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른 계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한해 동안 안건으로 상정된 중국학원 이사 선임건은 사안의 본질과 다르게 계파간의 힘겨루기로 비추진 게 사실이다.

예산안 심의에서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따라서 종책공청회 개최와 함께 총회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의 활용도 검토해볼만 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



조계종 중앙총회가 종책생산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43회 총회에서 집행부 보고를 듣고 있는 총회의원들의 모습.

이므로 비상임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종단 현안에 긴급히 대처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각 상임분과위별 공청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위원장, 간사)

총무(영남, 법안)=3~7대 중앙총회 회의록 발간 △교육(지하, 향적)=21세기 승가교육의 방향성 △포교(지중, 지현)=군포교 활성화와 군내 우수인력 양성 방안 △사회(여연, 법보)=국립공원에 사찰환경 보존과 대책 수립 △재정(위원장 공석, 종삼)=토지 처분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 △호법(대인, 도안)=통합종단(62년) 이후의 징계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법제(정휴, 광조)=종단 주요기관 및 증빙 해설서 발간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종교목적 부동산 면세 당언"

조계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조계종 총무원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 82조항을 개정해 종교목적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면세조치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2조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처분하면 특별부가세(자연익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교단체도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내야 하며, 조계종의 경우 매년 3억여원의 지출이 발생된다.

조계종의 의견서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비영리사업의 축소로 가져와 결국 국가재정 지출의 확대에 나타날 것"이라며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탈세 대책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조계종의 토지 양도면적은 14만㎡로 금액으로는 22억원에 이르며, 모두 공용수용이었다. 조계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협조하겠지만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조들이 사람의 유지를 위해 마련한 토지를 내리야 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도 적지 않다. 높은 세율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입 당시와 처분 때의 차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용수용에 의해 처분하면 취득시와 처분시 차액의 25%가 세금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한시법은 시한 종료로 앞두고 대부분 연장하는 것이 관례"라며 "조계종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누구든 본래면목 자각통해 깨달음

선종 성립에 담긴 의미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종의 성립은 불교사의 일대 대전혁을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다. 부파불교나 대승불교처럼 독자적 사상과 수행체계를 가진 이른바 '선불교'가 탄생하여 기존 불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실천불교로 펼쳐진 선불교 운동이 선종의 성립에서 기인한다.

근본불교의 가르침을 논리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론화로 인해 불교를 전문 수행인 중심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부파불교이고, 이런 부파의 한계를 타파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불교를 지향한 것이 대승불교이다. 여러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대승 또한 경전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살리고 있지만 교리의 체계나 수행법 등 실제적인 면에서는 부파 못지 않은 난해함과 방대함 및 깊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사상의 관념화나 신앙에 바탕한 수행을 보이고 있는 이런 대승을 극복하여 새로운 불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선인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강조하고 있는 삶의 형태와 이를 성취하는 수행법에 서 보이고 있는 현격한 특색이다. 대승의 경우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의 제도도 함께 하는 소위 '보살'을 이상적 삶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부처를 이룬다는 공통의 목적은 있으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랜 세월 수행해야 한다는 장겁수행의 의미가 들어 있다.

이에 비해 선은 바로 지금의 당채(當處)에서 깨달음을 얻어 곧바로 깨달음은 존재로 살아가는 '성불'을 이상으로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본성, 곧 본래면목에 대한 자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살아가는 각자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임제가 설한 '조불'이나 실우도의 열번째 '임전수수'가 그런 삶이다.

이를 체득하는 방법론에서도 선은 대승과 구별된다. 6바라밀 등 수행의 집적을 강조하는 것이 대승이라면, 선은 대승의 일체를 해탈하려 하는 것이 선이다. <육조단경>에서 언급하고 있듯 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어내면 부처가 되고, 거기에 미혹하면 중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이루는 방법이다. 선은 이의 성취를 위해 경전을 배척하거나 청법의 부정, 심지어는 살생살조(殺佛殺祖)라는 극단적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상적 삶의 형태와 이를 성취하는 방법론은 어떤 가르침이든 핵심의 부정, 심지어는 살생살조(殺佛殺祖)라는 극단적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상적 삶의 형태와 이를 성취하는 방법론은 어떤 가르침이든 핵심의 부정, 심지어는 살생살조(殺佛殺祖)라는 극단적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상적 삶의 형태와 이를 성취하는 방법론은 어떤 가르침이든 핵심의 부정, 심지어는 살생살조(殺佛殺祖)라는 극단적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



홍효스님 동국대 교수·선학

간 개인이 바로 지금의 즉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언행에 대한 주제적 자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내재된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절대적 존엄성과 주제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세계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흔히 방이나 할과 같은 파격의 모습으로, 그것도 촌각의 사랑분별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섬광같은 순간에 펼쳐진다. 머릿치리던 벌써 눈에 반짝이는 불꽃이 된다. 본래의 자리, 자재의 세계에 주저함이나 의혹이 없다. 의혹은 고통을 낳아 중생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단도직입이다. 바로 이것이 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며, 오늘날까지 불교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원천이다. 눈 앞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는 생명의 약동,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의 표현은 여기에 그 참된 목적이 있다. 선의 이런 세계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고시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 온갖 사상에 휩싸이고 매력적으로 비추지는 주변의 여러 것들에 이끌려 부끄러워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상실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직관에 의한 올바른 세계관의 확립과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자신과 이웃에게 평온과 행복을 준다. 선사들이 불교의 교조인 붓다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불충과 회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선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에는 모든 인간들의 절대적 존엄성의 강조와 그 자각을 통한 이상세계의 구현이 있었다. 그것도 내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이롭다.

선은 자신과 현실에 철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대한 반조와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선의 삶이 아니다. 교조주의 등 타성에 젖거나 미학신의 진리태를 절대시하는 것은 선이 경계하는 대상이다. 오늘날의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지, 선의 궁극적 삶의 형태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과 역사의 변화, 개개인의 자각을 통해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면서 그 가능성을 밝혀 주고 있는 것. 선종 성립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다.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씨향방은 기쁨이 특색인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은 佛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하려 열불 수행 20년이라 기간에 이를모를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뻑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하므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남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꼭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한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들에게,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선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꽃이 부채되어 있습니다 ※

공급처: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선화불교대학 내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예금주: 김정순

※ 전회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물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리사려움을 복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향을 찾아나서는데 龍龍이란 향이 있으니 공경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칠도하지 못하고 이해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을 얻어 배탈하지며 향을 얻어 삼막 보리공덕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가득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경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갑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괴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복의식, 관복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